



겨울강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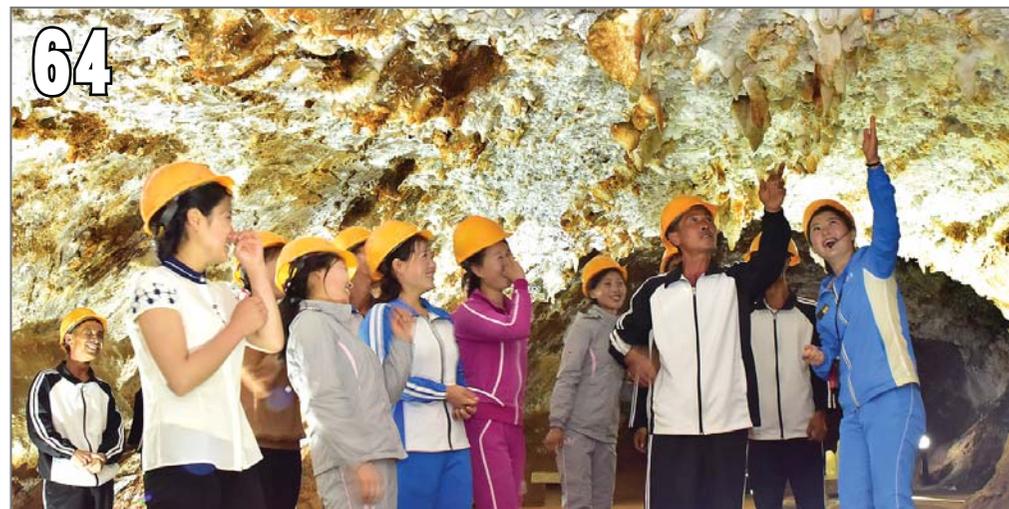
주체112(2023)
루게 제402호 월간



표지: 설명절날에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설명절을 경축하고있는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에 조국의 밝은 미래가 비껴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 2 || 위대한 헌신의 세계
- 6 || 만민이 우러르는 불세출의 위인
 - 수기
- 8 || 《그날을 마음속에 안고 삽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린 선물
- 9 || 청동공예 《보정》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 10 || 합작은 불가능한가?
 - 수기
- 12 ||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여 75년
 - 수기
- 18 || 건군절을 맞이할 때마다
 - 일화
- 19 || 위민헌신의 나날에
- 20 ||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 22 || 최고실적을 기록한 그 기세로
- 24 || 건설장들에 다종다양한 라일을
- 26 || 《대성산》아이스크림, 독특한 향기로
- 28 || 경제적실리가 큰 연구성과를
- 30 || 계절을 모르는 곳

- 34 || 아름다운 사람들
- 36 || 여성국제축구심판원 김은향
- 38 || 특색있는 보가지료리봉사로
- 39 || 다양한 기능성구슬제품들을
 - 조국의 품에 안겨
- 40 || 그가 걸어온 길
 - 교향소식
- 42 || 약동하는 대천군을 찾아서
- 46 || 동포의 애국지성이 깃든 병원
- 48 ||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은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 민족의 향기
- 50 || 민속명절 정월대보름
- 54 ||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락랑박물관
 - 력사인물
- 57 || 허균과 《홍길동전》
 -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한 국가들
- 58 || 백제
 -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 60 || 중세여성화가 신사임당
 - 력사이야기
- 63 || 왕성탄을 지킨 박다지
- 64 || 지하명승 송암동굴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로윤경
T-23088000944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9월

위대한 헌신의 세계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김정일

온 나라 강산에 서리꽃이 활짝 피어나는 2월이다.

하얀 서리꽃을 바라보며 조국인민들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마음속에 항상 인민을 안으시고 모든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 인민을 놓으신 그이께 있어서 가장 기쁘신 때는 바로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실 때였다.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고 행복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근본목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보는가 하는데서 사람마다 견해가 서로 다르다.

가장 숭고한 행복관, 인민관을 체현하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로선과 정책작성의 절대적기준으로 여기시였으며 그 무엇을 창조하여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기뻐하는가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자그마한 결함이 나라났을 때에는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고 나무람하시였다.

발전소건설에 지장을 받더라도 침수지역 주민들의 살림집부터 먼저 짓도록 하시고 닭공장파비단천, 화장품생산단위들을 찾으시여서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새 형식의 교향악이 관중의 절찬을 받았을 때에는 인민들에게 합격된셈이라고 누구보다 기뻐하시였다.

아무리 힘이 들고 고생이 많다 하여도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삼고 밝은 래일을 그려보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신 장군님이시였다.

연 167만 4 610여리,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이 수자는 그이께서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어가신 현지도의 거리이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 자신의 기쁨과 관련한 뜨거운 교시들을 많이도 남기시였다.

나는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살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 내가 지금 매일과 같이 군대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도도를 하는것도 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인민들이 잘살고 기뻐하면 나는 더이상 바랄것이 없다. ...

인민들생각으로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검소한 식사마저도 다하지 못하신채 현지도의 길에 오르시던분, 멀리 외국방문의 길에서는 두고 온 인민들생각으로 잠 못이루시였고 양어장에서 자신게로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순간에조차도 이 물고기떼가 인민들에게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가슴속진정을 터치시던분.

겹쌓이는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전하는 하많은 사실들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주체89(2000)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안북도에 대한 현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그때 일군들은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아버지장군님께 현지도를 좀 미루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이께서 다문 하루만이라도 쉬시는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에게는 일하는것이 곧 휴식이라고 하시며 또다시 길을 떠나시였다.

그이께서는 달리는 렬차에서도 집무를 보시느라 잠시도 휴식하지 못하시였다.

그런데도 새날이 밝아오자 또 하루일을 시작하시였다.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들이 너무도 안타까와 안녕을 바라는 자기들의 청은 인민들의 청이라며 한번만이라도 받아 주실것을 아뢰였건만 그이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지난밤 30분동안 푹 잤다고 하시는데였다.

정녕 이렇게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길이었고 이렇듯 눈물겨운 애민헌신의 길에서 꽃피난것이 인민의 행복이였다.



창진거리



하나음악정보센터

공장이나 농장에 가면 나의 인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곤 한다고, 인민들이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쌓인 피로도 한시에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고, 나는 우리 인민을 잘살 수 있게 할수만 있다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고 하신 장군님의 교시.

여기에는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서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으신 그이의 숭고한 인생관과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의 세계

가 비끼어있다.

나라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넋과 열정을 다 기울이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동력기지들과 공작기계, 료전기계를 비롯한 기계생산단위들, 농업, 축산, 파수, 양어, 가금기지들, 경공업기지들과 상업봉사기지들,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력력히 새겨져있으며 하나하나의 창조적재부들은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다.

이렇게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다 바쳐오신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주체100(2011)년 12월 15일, 그날 불편하신 몸으로 광복지구상업중심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새로운 상업봉사기지를 돌아보니 정말 만족하다고, 광복지구상업중심에 상품을 가득 채워놓은 것을 보니 추운 날이지만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하시며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터치시었다.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려는것은 나의 드림없는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생을 이렇게 사시었다. 그 위대한 한평생으로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꽃피우시고 인민을 하늘로 떠받드시었다.

하기에 그이의 탄생 81돐을 맞이하는 조국인민은 한없는 그리움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한생을 돌이켜보고있다.

본사기자 연 옥



평양매기공장



평양남새과파학연구소



릉라물놀이장

만민이 우러르는 불세출의 위인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인덕으로 빛나는 정치경륜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심은 세계의 각계층 인사들이 그이께 드린 호칭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그시절에 벌써 외국류학생들로부터 《위대한 태양이 낳은 위대한 조선의 별》로 칭송받으신 그이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조국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세계반제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다함없는 신뢰를 받으시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었던 비슈와 나스는 자기의 글에서 **김정일**장군님은 태양과 같은 밝은 빛으로 인류에게 광명을 주시고 태양과 같은 위력한 힘으로 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인류의 태양이시라고 서술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는 《**김정일**각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옳바른 길을 실천으로 가르쳐 주시었다. 그이께서 취하신 대담한 조치들과 과학적분석들에서 우리들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위업이 영원불멸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사회주의구원자로 력사에 기록될것이다.》라고 토로하였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위대한 장군님의 저작들을 탐독하고 그이를 《사회주의와 인류운명의 구원자》로 격찬한 도미니카의 한 정계인사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의 운명》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가 없으면 세계도 없다.》라고 진정을 터친 전 쿠바녀성법률가 칸델라리

아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의 심장의 목소리는 자주시대의 탁월한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분출이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1990년대 중엽 선군정치로 무적필승의 강군을 키워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하시며 반제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께 드린 호칭들도 만민의 끝없는 경모심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투철한 군정치활동가》, 《완전무결한 군사가》, 《백승의 작전가》, 《장군형의 정치가》, 《무적필승의 상징》, 《천하제일 령군예술가》, 《불세출의 영웅》...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오스트리아 전 사범상 한스 클레카츠키는 그이를 《정치적신념이 강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신 걸출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실천가》로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한번 만나보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어 자기들의 걱정을 토로하였다.

짐바브웨의 전 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는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인》이라고 하였으며 캄보쟈의 노로돔 시하누크국왕은 《인류가 따라배워야 할 충신의 귀감》으로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하늘에 태양이 제일 높이 떠오르는 정오에 종을 울리게 되어있는 정교의식의 엄격한 계를을 어기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원을 찾아오시는 시간에 종을 울리면서 그이께 로씨야정교사원인 성자 인노켄찌 이르꾸찌기사원의 신부 쎄로뽀뜨는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 사원에 태양이 오셨습니다. 태양이 오셨는데 종을 울리는것은 응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뿐이 아니다.

수많은 나라의 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 각계인사들도 그이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보은 감상에 대하여 기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세계의 모든 정세를 환히 꿰들고계시며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분석평가하시는 《현대인》이시라고 피력하였다.

미국무장관이었던 알브라이트도 조선방문 후 위대한 장군님은 리론이 체계정연하고 매우 론리적이며 복잡하게 뒤엉킨 현 국제정세문제들을 환히 꿰들고있을뿐 아니라 그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정확하고 모든 문제

처리에서 통이 크고 대범하며 명철하다고 하면서 그이를 《다재다능한 령도자》로 칭송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경이적인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위인께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은 《다재다능에서 세계의 최고인 리상적인 지도자》, 《문학예술과 건축의 대가》, 《인류음악의 천재》, 《세계적인 대문호》 등의 호칭들을 드리였다.

참으로 특출한 실력과 숭고한 덕망,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만민을 감복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을 초월하여 세계 수억만 인류의 열렬한 신뢰와 경모를 받으신 전설적 위인이시다.

* * *



《그날을 마음속에 안고 삽니다》



우리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이 준공되어 수도시민들을 위해 봉사 시작하기도 어느덧 10여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정말 많은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점을 찾는 인민들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상점에 모시고 교시를 받아안던 그 10여년전의 이야기를 매 사람들에게 다 해주고싶은 마음입니다.

주체100(2011)년 9월 8일 개업을 앞둔 날 나는 상점의 안팎을 돌아보며 미흡한 점은 없는지, 상품진렬은 제대로 되었는지 하나하나 료해하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상점을 찾아주시었습니다.

그이를 뵈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워 나는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상점안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수고가 많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이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하게 건설된것이 못내 만족하시여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습니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인 피로가 다 풀리시는데듯 흐뭇하게 매대를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매대우에 있는 상품가격표에서 시선을 멈추시고 그만 안색을 흐리시는 것이였습니다.

가격이 비쌌던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몸둘바를 몰라하는 나를 찾하지 않으시고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은 자신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한 상점인것만큼 이 상점에서는 누구나 상품을 살수 있게 상품가격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타일러주시였습니다.

인민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들수록 나의 마음은 뜨거워만졌습니다.

그이께서는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상품의 가격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그 무게와 모양새, 포장상태를 가늠해보시였습니다.

고기가공제품을 보시고서는 이런 고기가공제품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으며 잠깐 들려서 불고기맛을 보게 의자가 없이 설계되어 꾸러진 3층불고기식당에 가시여서는 늙은이들과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꼭 의자를 놓아주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을 돌아보신데 이어 보통강상점도 또다시 찾아주시면서 인민들에게 사

철 맛있는 사과며 신선한 남방 과일들이 정상적으로 가당게 하시려고 마음쓰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떠나실 때에는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의 개업식도 크게 하라고, 개업식을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뜻깊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상점들을 곳곳에 지어주어 인민들 누구나 다 그 덕을 보게 하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마감까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에 다 몰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것처럼 불편하신 몸으로 아직 채 가셔지지 않은 무더위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시며 우리 상점을 찾아주시였는줄, 그날의 현지지도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불철주야 이어가신 인민사랑의 자옥들중의 하나로 남게 될줄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상점을 찾는 인민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나 눈시울을 적시곤 합니다.

우리는 상점내외부를 그이께서 오시였던 그날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하고 상품의 가치수와 식당의 료리수도 훨씬 늘이여 오로지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더 많이 가당게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보통문거리고기상점 경리 림은숙

청동공예 《보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총재 박철수가 드린 선물 주체99(2010)년 2월

함작은 불가능한가?

안도와 통화를 련결하는 반일인민유격대의 행군로정에는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지대에서나 볼수 있는 험준한 산악들과 계곡들이 많았다. 안도에서 무송까지는 장백산줄기가 뻗어있었고 무송에서 통화까지는 삼차자령이나 삼도로야령과 같은 험한 령들로 이어진 룡강산줄기가 첩첩히 가로놓여있었다.

이런 산줄기들을 타고 부대는 한달가까이 힘에 겨운 행군을 계속하였다. 낮에는 적들의 경계가 미칠수 있는 대도로를 피해 산악행군을 하고 밤에는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부락들에 들어 끊임없는 정치공작과 전투훈련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혁명조직들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송에서도 며칠동안 체류하였다. 거기서 그때 장울화도 만나보았다.

장울화는 우리의 체류기일이 짧은데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면서 학창시절의 자기와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무송에 이틀이나 사흘쯤 더 있다가 가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도 그 요청에 응하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다. 무송은 나와 수십수백갈래의 사연으로 얽혀져있는 의미깊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정대로 사흘인가 닷새만에 부대를 출발시키었다. 지난날에 대한 추억이 아무리 소중한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인정이 아무리 눈물겨운것이라 하더라도 량세봉사령과의 해후를 위해서는 섭섭한대로 장울화와도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무송에서 통화까지는 500리가량 된다고 하였다. 가면 갈수록 심산이라는 말과 같이 산세는 점점 더 사나와지고 행군도 힘들어졌다. 생소한 메봉우리들과 골짜기를 타고 수백리 산길을 강행군으로 돌파하는 사이에 대원들은 모두 녹초가 되었다. 부대내에서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나 역시 계속되는 행군으로 어지간

히 지친 몸이 되었다. 원정대가 통화근방까지 갔을 때 차광수가 문득 나한테로 달려와 이도강에서 하루나 이틀쯤 숨을 돌리다가 통화로 들어가자고 제의하였다.

《무송에서도 더 있고싶은것을 꼭 참고 500리를 내쳐 달려왔는데 통화를 코앞에 두고 휴식이라니 웬말이요? 차광수답지 않구만.》

나는 차광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어렵게 짐작하면서도 그 주장에 동조할수가 없어 일부러 이렇게 물었다.

차광수는 대답에 앞서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주장을 완강하게 고집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보여주는 특이한 습관이였다.

《사람들이 모두 지칠대로 지쳤소. 대장동무 자신도 극한점에 도달했구.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내 눈은 속이지 못하오. 환자들이 생겨 겨드랑이에 끼고 행군하는 형편인데 이 꼴로 가서야 량세봉사령한테 어떻게 명함을 들이대겠소.》

《량세봉선생은 그만한 사정도 통찰하지 못할 웅졸한 사람이 아니요.》

《사령은 안목이 높아서 그렇다치고 수백명이나 된다는 부하들의 눈은 어떻게 하겠소. 우리를 보구 오합지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야단이 아니요. 천리를 행군해온 공이 나무아미타불이 될가봐 겁나오.》

이쯤되면 차광수의 고집을 누구도 휘여낼수 없었다.

나는 차광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피죄죄한 몰골로 통화에 나타나면 독립군들이 우리를 시답지 않게 볼수 있는 우려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들이 만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알아보게 되면 모처럼 계획했던 함작도 우리의 의도대로 성사시킬수 없었다. 그렇다면 차광수가 제기한대로 이도강에서 하루나 이틀

쯤 숨을 돌리다가 원기를 회복한 다음 질서정연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통화시내로 행진해들어가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았다.

나는 전부대가 행군을 정지하고 이도강에서 숙영할것을 명령한 다음 량사령에게 련락원을 파견하여 독립군과의 함작을 위해 반일인민유격대가 안도를 떠나 통화근방에 도착하여 휴식중이라는것을 통지하였다.

우리는 통화에 간련락원을 기다리며 이도강 마을에서 로독을 풀었다.

지휘부는 물레방아간집에 자리를 잡았다.

물레방아간집 늙은이들은 성의를 다하여 나를 돌보아주었다.

내가 독립군과의 사업에 필요한 행동조례를 해설해주기 위해 지휘부에 대원들을 여러문명 불러다가 정치상학을 하는것을 보고 그 집령감은 백성의 성의를 몰라준다고 하면서 나를 몹시 나무리었다.

《옛 성현들이 이르기를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기를 상하고 지나치게 기뻐하면 감정을 상하고 성내는 일이 많으면 의지를 상한다고 했네.

생각을 적게 하고 걱정을 적게 하고 일을 적게 하고 말을 적게 하고 웃음을 적게 웃으라는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섭생의 본도고 리치란 말일세. 그런데 대장처럼 말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야 기는 어떻게 보존하며 병은 어떻게 털어버린단 말인가. 항차 자네들이야 조선을 독립시킬 군사들이 아닌가.》

로인이 머리에 새겨두기조차 힘든 수십가지의 양생법을 진지하게 설명해주면서 대사란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것도 아닌데 장래를 생각해서 몸을 잘 돌봐야 하지 않는가고 거듭 력설하는 바람에 나는 부득불 정치상학에서 손을 떼고 그것을 차광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로인의 말을 듣고 그가 허준의 송배

자라는것과 로인이 우리들에게 장시간 해설해준것이 바로 《동의보감》에 있는 섭생법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서 어떻게 섭렵한 지식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로인은 보양법에 대한 조예가 상당한 정도로 깊었다.

우리가 이도강을 떠날 때 로인은 참지에 싸두었던 련밥과 꿀에 반죽했다가 말린 구기자환 여러 봉지를 차광수에게 맡기면서 많지 않은 약이지만 대장의 몸을 보양하는데 써주면 고맙게 생각하겠다고 하였다.

로인이 자신의 섭생을 위해 모처럼 지어둔 보약을 가볍게 받을수가 없어 나는 그 약을 조심스레 사양하였다.

《로인님, 성의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 약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것들이야 기가 허하거나 혈이 모자라서 못살겠습니까. 한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락을 보지 못한 로인님께서나 이 약을 쓰시고 조선이 독립되는 날까지 장수하십시오.》

로인은 그 말을 듣자 가볍게 성을 내면서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약을 밀어보내었다.

《우리가 다된 인생인데 보약을 쓰면 뭘하고 안쓰면 뭘하겠나. 그렇지만 자네들이야 조선을 독립시킬 선봉대가 아닌가. 우리가 썩박드들기라면 자네들은 청송록죽이란 말일세.》

우리는 통화에 갔던 련락원이 되돌아와 량사령이 나의 서신을 받고 반일인민유격대의 통화입성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것과 그가 부하들에게 유격대환영준비를 잘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바쁘게 이도강을 떠났다. 이도강체류기간에 리발을 하고 바지에 주름까지 세운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은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정보행진도 하고 때로는 혁명가요도 부르면서 통화시가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행진해갔다.

(다음호에 계속)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여 75년

올해 2월 8일은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지 75돛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조국의 어디를 가보아도 인민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열렬한 축하의 인사인 듯 경축의 글발들이 나붙고 람홍색공화국기가 힘차게 나뭇기느것을 볼수 있다.

그 모습을 보며 조국인민들은 75년전인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역전광장(당시)에서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알리는 첫 열병식이 진행되였던 그날의 화폭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본다.

총창을 역세계 비껴들고 열병식장을 보무당 당히 행진해나가던 인민군군인들의 긍지높은 모습, 강산이 떠나갈듯 만세의 함성을 터치던 인민들의 걱정어린 모습...

당시 조선인민군의 첫 열병식소식을 실었던 《로동신문》에는 열병광장에서 기자와 만난 로동청년의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있다.

《인민군대라는 말만 들어도 무한한 기쁨이 가슴에 가득차집니다. 조선청년들의 가슴속에 뭉키고 서리였던 소원이 오늘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뛰어들어 어깨를 추기고 군인들과 같이 행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 시각 인민들의 가슴속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피맺힌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난날에 대한 생각, 그렇게도 바라던 인민의 군대를 가지게 된 기쁨과 환희, 강력한 정규무력을 가지고싶어했던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끊어넘치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인민들은 력사의 그날이 안고있는 력사적의의를 미처 다 헤아릴수 없었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그 누구도 조선이 승리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지만 청소한 공화국의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역전광장(당시)에서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알리는 첫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이 주체111(2022)년 4월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은 침략자들을 쳐 물리치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그후에도 끊임없이 감행된 적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와 손길아래 조선인민군이 이룩한 승리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2월 8일이 안고있는 거대한 의의에 대해

절감하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억세계 준비되었다.

그리고 전군에 훈련열풍이 세차게 일어나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군들로 자라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각종 공격 및 방어수단, 억제수단들을 완벽하게 갖춘 최강의 군대로 자랑떨치고있다.

돌이켜보면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 1960년대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1970년대의 《관문점사건》,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무

모해진 침략전쟁도발책동 등 매 년대기들마다 적대세력들과의 끊임없는 대결에서 조선인민군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승리만을 떨치였다.

진정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도전도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으로 향한 조국의 력사적진군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하기에 2월 8일을 맞는 조국인민은 영웅적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날과 달들을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며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끓이고있다.

그리고 다시금 가슴속에 새겨안는것이 있다. 력사의 2월 8일이 있기에 조국의 빛나는 존엄도, 인민의 영원한 행복도 있다는것을.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조선중앙통신



건군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 나이 이제는 90살이 된다. 인생의 황혼기이면 추억에 살다는 말이 있는데 머지않아 건군 75돛을 맞이하게 되니 젊었을적 일들이 자주 떠오르곤 한다.

지금도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알리는 열병식이 진행된 소식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히 안겨온다.

그때 15살이었던 나는 여러 동무들과 함께 내가 살던 함경남도 리원군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향해 떠났다.

평양에 도착한 나는 인민군 군인이 된 한고향에서 살던 형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 인민군대가 어떻게 창건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정규무력건설을 국가와 인민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항일혁명투사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하시여 혁명적정규무력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었다.

그리고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시여 수많은 청년들을 군사정치간부들로 키우시었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마침내 주체37(1948)년 2월 8일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혁명적정규

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될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가슴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총을 잡고싶은 열망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었다.

그래서 동무들과 같이 때를 써보았지만 나이가 어려 종내 뜻을 이룰수가 없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조선인민군에 입대한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39(1950)년 7월이였다.

당시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었던 청소한 인민군대를 앞잡아본 미제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미제는 오산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갱도전법, 땅크사냥군조운동,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등을 비롯한 수많은 주체전법들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군사작전수행에 널리 활용하도록 하시여 조선인민군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하시었다.

나도 비행기사냥군조의 한 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중우세》를 떠들며 우리의 하늘에서 제멋대로 날뛰던 적비행기 8대를 썩떨구고 주체42(1953)년 1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게 되었다.

그해 우리 사냥군조성원들은 건군 5돛을 경축하여 소박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통쾌하게 족치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승리의 역사를 창조할수 있는 힘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면서 조국의 존토를 지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리라 결의다지였다.

참으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총대중시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해방후 지체없이 건군의 기초를 마련하시고 정규무력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건군업적을 빛내여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것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었다.

무적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행로우에 빛나는 2월 8일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오늘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는것을 나는 굳게 확신한다.



전쟁로병 공화국영웅
지천률

위민헌신의 나날에

인민을 첫자리에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건축물이 일떠선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1 500석원형생음극장을 둘러보시며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잠시후 일군들에게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참으로 뜻밖이였다.

그이께서는 극장에 중앙관람석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쏘파를 놓았는데 그것을 없애야 하겠다고, 자신께서는 앞으로 이 극장에 공연을 보러 올 때에는 인민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전에 그그마한 특전이나 특혜도 절대로 불허하시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앙관람석을 없애고 대신 관람석의자를 더 놓으면 좌석수도 늘어날것이라고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어 극장에는 지금과 같이 중앙관람석이 없어지고 그만큼 일반관람석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후 그이께서는 인민극장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개관공연을 보통좌석에 앉으시여 인민들과 함께 관람하시였다.

여기서 한밤을 새고싶다 하시며

주체108(2019)년 10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북도의 중평온실농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온실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시느라 어느덧 사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그이께서는 농장원들이 새살림을 펴게 될 농장마을로 향하시였다.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을 빨리 보고싶으신듯 앞장서 소총살림집에 이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러 살림집들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며 만족해하시였다.

어둑질은 공원의 돌의자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여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얼마나 좋은 밤인가고, 오늘같은 좋은 밤이 한달에 한번씩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평양시에 번듯한 거리가 하나 늘어나는것보다 지방에 중평온실농장과 같은 창조물이 일떠서는것을 볼 때가 기분이 더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황홀한 새집에서 웃음꽃을 피워올리는 북방의 농업근로자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너무도 기쁘시여 오늘은 여기서 이 한밤을 새고싶다고 하시며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응당 차례져야 한다

지난해 4월 13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례를 끊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호화주택을 받아안고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새집의 주인들을 따듯이 축복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 지구에서 철거된 집은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뿐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자리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건설되고 인민들이 입사하게 되었다는것을 아시면 기뻐하실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경루동살림집을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에게 배정하기 정말 잘하였다고,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어가 아니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경루동살림집은 우리 주권을 세우고 떠받들고있는 인민들에게 응당 차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 * *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원칙으로 하고 있는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숙원사업이며 당과 정부의 최종과업이다.



지난해 12월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조선로동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과업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주체110(2021)년에 있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건설부문에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2021년부터 해마다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5개년계획기간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사실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비롯하여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적인 살림집건설을 계획하는것자체가 상상밖의 엄청난 일이었다.

조선로동당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살림집건설을 수도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있는 중대한 정치적사업으로 여기고 추진하였다.

주체110(2021)년 3월 수도 평양에서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착공식에서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별도로 보통문 주변에 근로자, 혁신자들을 위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도 맡기하시고 추진시키도록 하시였다.

설계자들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시하면서 살림집설계를 완성하였고 건설자들은 최상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면서 공사기일을 앞당기였다.

하여 다음해 4월 수도에는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이하는 인민의 경축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였다.

조국에서 살림집건설은 나날이 더 큰 규모에서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10(2021)년말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는것을 총적인 목표와 지향으로 내세우시였다.

그리고 기본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켜 2022년도에 계획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놓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수도의 살림집건설과 병행하여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농촌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당의 농촌건설구상이 지체없이 실행되도록 시, 군건설려단들이 조직되고 건설장비, 기공구, 자재보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따라섰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나날 농촌살림집건설과 관련한 2 000여건에 달하는 설계형성안을 지도하여주시였으며 농촌건설용세멘트를 시, 군들에 전진공급하기 위한 수송수단, 수송방법과 보관문제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였다.

하여 지난해말에는 각 지방들에서 지역적특색이 뚜렷이 살아나는 아담한 살림집들이 완공되어 련이은 새집들이소식으로 온 나라가 흥성이였다.

그런가 하면 굴지의 유색광물생산기지인 검덕지구에서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 광산도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주체111(2022)년 2월에 착공을 선포하였던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조국에 일떠서는 모든 살림집들은 국가적투자에 의해 건설되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있다. 최근년간에 와서 새집들이경사, 새집들이계절이라는 말은 조국에서 류행어처럼 쓰이고있다.

조국의 현실을 목격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조선사람들은 집걱정을 모르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권리인것같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였다.

조선로동당의 구상에 따라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조국에서는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건설과 함께 새로운 3 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완성하게 되며 지난해에 축적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을 대대적으로 진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엄향심

최고실적을 기록한 그 기세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매일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조업이래 최고실적을 기록한 이곳 로동계급은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퍼올리며 새해 첫날부터 과감히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전력보장부문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공급되는 전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대형설비들을 만가동시키는데 힘을 냈고있다.

소성직장, 세멘트직장의 로동계급은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관리하고 순회점검과 예방보수를 실속있게 하면서 대형설비들의 동음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세멘트생산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은 설비들의 운영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다.

원료, 연료보장을 맡은 상원석회석광산과 화천탄광, 삼청광산에서도 증산투쟁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이곳 로동계급은 직장별, 갱별, 소대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고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면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공무직장과 주강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의 로동자들도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세멘트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전진하는 이곳 로동계급의 사업기풍은 뚜렷한 생산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지금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가장 철저히 완벽하게 집행할 열의드높이 날마다 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조선중앙통신





건설장들에 다종다양한 타일을



천리마 타일 공장은 주체98(2009)년 7월에 세워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건설장들에 필요한 각종 타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타일생산 기지로 전변되었다.

《천리마》타일은 크기와 형태, 색깔과 문양이 다양하고 방수와 차열기능 등을 갖추고있을뿐 아니라 평면 및 직각허용수치, 수축률, 강도, 팽전딜성을 비롯하여 그 질적수준이 높아 ISO국제품질인증을 받았다.

공장에서는 생산활성화의 담보를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지배인 리홍림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공업시험소의 역량강화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실력가들을 이곳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해마다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맡겨주었으며 수행정형에 따라 평가도 의의있게 하고 공업시험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곳 기술자들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일부 원자재들과 여러가지 색깔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실용적의의가 큰 비등



공장기술자들이 타일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하고있다.

식열풍로를 개발도입하여 연간 수천t의 연료를 절약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원자재를 국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중의 하나가 내벽타일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의 하나인 유약문제를 해결한것이다.

지난해 공장에서는 유약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대용할수 있는 광석을 찾아내고 각종 원료들의 합리적인 배합비율을 확정하여 국내원료에 의거한 유약생산공정을 꾸리였다.

결과 자체로 만든 유약을 가지고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랙구,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타일을 생산보

장하였으며 바닥타일생산흐름선을 개조하여 같은 설비를 가지고도 외벽타일과 내벽타일 등 각종 타일생산을 계획보다 백수십만㎡나 더 생산하였다.

원자재의 국산화, 생산성제고, 제품의 질개선, 생산공정의 현대화, 원가저하 등 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룩된 하나하나의 과학기술성과들은 단위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였다.

공장에서는 타일의 품종을 확대하고 올해에 또 하나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 해
사진 본사기자 리 철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타일들의 일부





《대성산》 아이스크림, 특별한 향기로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슬슬 도는 먹음직스러운 《대성산》 아이스크림들.

최근 조국의 상업봉사망들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것이 이 크림들이다.

이 아이스크림들은 지난해에 준공한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많은 력사유적들이 있고 물자원이 풍부한 곳에 위치한 공장은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여러 생산공정들과 숙성실, 제품개발실, 분석실, 통합조종실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원료배합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은 흐름식으로 되어있으며 정연한 품질관리체제도 갖추고 있다.

공장에서는 각이한 맛과 향기, 알맞춤한 크기와 독특한 모양을 가진 여러가지 아이스크림들이 생산되고있다.

특히 질좋은 생우유와 생크

림, 천연과일즙을 주원료로 하는 딸기초콜레트아이스크림, 초콜레트감복숭아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망고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고품질아이스크림들은 영양성분함량이 높으며 맛이 진하고 사르르 녹는 상쾌한 느낌으로 하여 인기가 대단하다.

딸기에스키모, 복숭아에스키모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대중식품으로 되고있다.

음료생산장에서는 복숭아단물, 귤단물, 망고단물, 딸기단물이며 사과탄산단물, 귤탄산단물과 같은 무당, 무카로리음료들과 커피우유, 복숭아우유, 파이내플우유와 같은 우유제품들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모든 제품들이 인민들이 선호하고 반기는 제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있다.

어떻게 하면 더 천연적인 맛을 내고 포장과 제품상표의 도안을 멋있게 하겠는가, 이러한 지향으로 공장종업원들모두의 생각이 합쳐지고있어 새 제품

들은 계속 개발되고있으며 그 인기령역도 넓어지고있다.

하여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들에서 이 공장의 아이스크림들은 심사자들과 인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배인 김혜경은 《우리 공장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공장이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이란 모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과 관련하여 수차례 걸쳐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우리 공장은 시련이 중첩되는 속에서도 훌륭하게 일떠서게 되었다. 인민들이 선호하는 맛좋은 아이스크림들과 음료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경제적실리가 큰 연구성과를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에서 조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련이어 내놓고 있다.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소장 리영일을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이 개발도입한 기능성종이 제품들은 고성능공기려과종이와 건전지용격막종이, 각종 료전기재기판용려과종이 등 20여가지가 된다.

첨단제품으로 인정된 이 기능성종이제품들은 특성이 각이한 여러 층의 구조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화력발전소, 제약 공장, 보건기관, 식료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물과 기름, 공기 등을 살균, 려과하는

데 리용되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몇해전 이곳 과학자들은 조국에 흔한 원료로 여러가지 기술적지표들에 부합되는 려과종이를 개발할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경험도 없고 그와 관련된 기술자들도 없었다. 그야말로 초행길이나 다름없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였다.

그들은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현실속에 내려간 그들은 해당한 기술지표들을 확정한테 기초하여 모의실험을 거듭하면서 끝끝내 물끼림성과 공기통과성이 좋은 려과종이를 만들수 있는 합리적인 원료조성과 제조조건을 밝혀내였다. 동시에 효능높은 살균제를 만들어 려과종이에 침착시키기 위한 연구도 내밀었다.

그 나날 그들은 기능성종이제품들의 다품종화를 실현할수 있는 새로운 종이생산공정도 확립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곳 과학자들은 가성소다, 표백제와 같은 화학시약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종이의 백색도를 높일수 있는 환경보호형, 원가절약형종이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김화군종이공장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에 도입하였다.

현재 도입단위들에서 종전에 비해 종이 t당 에네르지는 40%, 물소비량은 70%, 생산부지면적은 30%, 로력은 20%정도 절약하고있다.

새로운 종이생산공정에서는 가랑잎 30%와 우무가사리 15%를 보충원료로 리용하여 각종 종이 성형품을 생산하면서도 제품 t당 1m³이상의 나무를 절약할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시기처럼 매 제품에 따르는 설비들을 따로따로 놓지 않고도 한 설비에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할수 있어 실리가 더욱 크다. 그들은 단긴형생산체계를 구성하여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공업용수를 전부 회수리용함으로써 환경도 보호하고 생산원가도 대폭 낮출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소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리영일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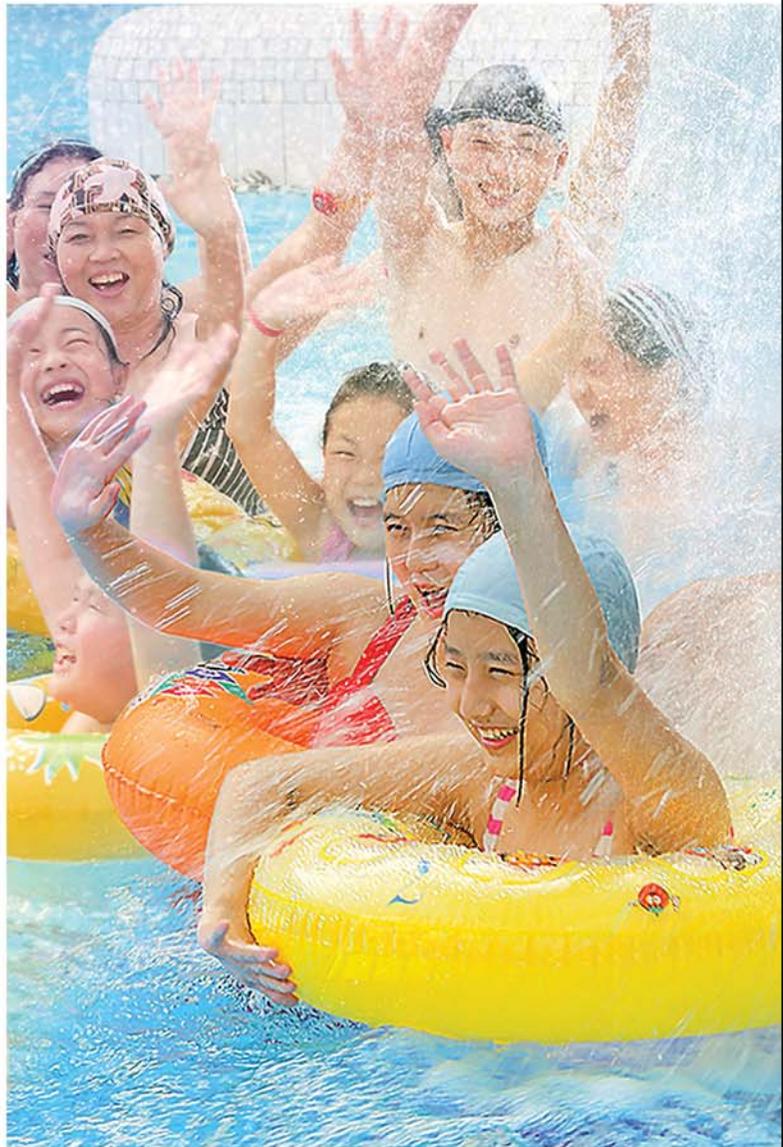
수 있게 하였다.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건본모방형이 아니라 조국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고 실천해나가는것을 자신들의 창조방식으로 간주하고 경제적실리가 큰 새로운 기능성 종이제품들과 종이생산설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계절을 모르는 곳

문수물놀이장은 대동강이 감돌아흐르는 모란봉과 룡라도의 수려한 자태가 한 눈에 안겨오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다.
 큰 11만㎡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이곳에는 넓이가 1만 6 500㎡이고
 큰 1 2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실내물놀이장이 있다.



창밖에는 흰눈이 소복이 내려 쌓이고 찬바람이 불고있다.
 하지만 문수물놀이장의 실내물놀이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도 물놀이를 즐기고있다.
 자연 채광이 비쳐들어 푸른 하늘이 그대로 지붕이 된듯 야외나 다름없이 넓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있는 이곳에는 9개의 수조와 함께 각이한

길이의 미끄럼대들이 여러개나 있다.
 서로 다른 곡선미를 가진 물미끄럼대들에서 8자구명대를 타고 지쳐내리는 사람들이 첫눈에 띄운다.
 그런가 하면 물미끄럼대에서 쾌속으로 미끄러져내리는 청년들, 파도에 밀려왔다가는 또다시 파도를 향해 맞받아 헤엄치는 학생들과 구명대에 의지하여

파도에 몸을 맡긴 아이들, 덕수터에서 웃고 떠드는 중년, 로년의 사람들로 하여 어디서나 웃음소리가 넘친다.
 동심에 맞게 꾸러진 어머니 및 어린이수조에서도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중구역 류성동에서 살고있는 최연미녀성은 처녀시절에 동무들과 함께 이곳에서 많이 놀곤

하였는데 어머니가 되어 어린 딸과 물놀이를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였다.

여러가지 치료효과가 있는 한증방들, 배구, 룡구, 보링, 바드민톤, 벼랑타기와 탄력망운동을

할수 있는 실내체육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있다.

그가운데서 가장 이채를 띠는것은 벼랑타기이다. 10대의 어린 소녀가 침착하게 한발한 발 올라가는가 하면 방금 벼랑

끝까지 올라갔다내려온 한 중년남성이 함께 온 안해에게 한번 올라가보라며 추기는 모습도 보인다.

관리원 최학신은 《보다실이 실내물놀이장은 한겨울에도 많은 사람들로 붐고있다. 특히 휴식일이나 명절날에는 이곳을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있다. 그들의 하나와 같은 목소리는 이곳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 좀처럼 떠나고싶지 않다는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시절 계절적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근로자들의 웃음소리 높은 문수물놀이장이다.

글 본사기자 러 해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주충성



문수물놀이장은 사시절 계절이 따로없이 인민의 복리증진과 문명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특류영예군인인 내가 경제선동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쓰러지지 않은것은 나에게 정성을 기울여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미덕과 미풍이 국풍으로 되고 사랑과 정에 기초한 고상하고 순결한 도덕의리의 힘으로 승리를 펼쳐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윤정희가 20살 꽃나이에 군사임무수행도중 뜻밖의 부상으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절망과 좌절감보다 먼저 그에게 찾아든것은 낯모를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었다.

저녀시절에는 훌륭한 충각이 찾아와 일생을 약속하였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의료일군들이 자식을 낳을수 없다던 현대의학의 진단을 라파하고 옥동자를 보게 하여주었다.

얼마전 저녁무렵 윤정희녀성이 살고있는 락랑구역 통일거리2동 33인민반 1층 1호로 이웃에 사는 채옥희녀성이 찾아왔다.

언제부터인가 퇴근길에 특류영예군인인 윤정희녀성의 집에 들리는것이 일과처럼 되어버린 그는 이날도 윤정희의 몸보신에 쓸 귀한 약재를 구해가지고 온 것이었다.

윤정희와 무릎을 마주한 채옥희의 뇌리에는 그와 인연을 맺게 된 17년전 일이 떠올랐다.

우연한 기회에 한 건설장일을 지나가던 채옥희는 사륜차에 앉아 경제선동을 하는 한 녀성을 보게 되었다.

사륜차에서 마이크를 한손에 잡은 그 녀성은 격동적인 선동과 힘있는 노래로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었다.

알고보니 윤정희는 20여년전 군사임무수행중 동지들을 구원하고 척추골변형, 골반골절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특류영예군인이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채옥희는 성성한 육체를 가지고도 자기 가정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

아온 자신의 지나온 생활에 대한 자책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건설장에 올려퍼지는 특류영예군인의 힘찬 목소리와 유정한 노래소리가 마치 자신을 타매하고 채찍질하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채옥희는 그때부터 공장, 기업소들과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나라의 곳곳마다에서 경제선동활동을 즐기치게 벌려가고있는 특류영예군인 윤정희를 따라나섰다.

한달, 한해, 이렇게 흐르는 나날속에 채옥희는 다른 사람의 방조가 없이는 마음대로 돌아누울수도 없는 이 특류영예군인녀성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혈육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봐주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윤정희녀성이 살고있는 동의 일군들과 인민반장들, 주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예군인녀성이 알게모르게 찾아와 그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따듯이 돌봐주었다.

평양면옥의 봉사자들은 윤정희가 입맛을 잃을세라 별식을

안고 달려왔고 앓고있을 때에는 밤새 병구완을 해주었으며 날씨가 차지면 새 솜옷도 마련해주곤 하였다.

몇년전 락랑구역출판물보급소 보급원들은 한 영예군인녀성이 나날이 더해만지는 당의 사랑과 은정을 세상에 소리높이 터치고싶어한다는것을 알게되자 김형직사범대학 원격교육학부에 입학하여 공부하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주었고 그의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것이 무엇인가도 정상적으로 알아보며 마음을 썼다.

이렇게 덕과정이 공기처럼 흐르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채옥희녀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끊임없이 정화되고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찾아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있다.

윤정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국가의 혜택속에 방안에 편히 누워있다고 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의 모든 행복을 꽃피우고 지켜주는 당의 은덕이 너무 고마워 시대의 거세찬 숨결에 나의 작은 목소리도 합치고싶었습니다. 이 가슴에 빛나는 5개의 국기훈장에는 나를 위해준 고마운 사람들의 정성도 깃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윤정희녀성은 이웃들과 고마운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속에 지칠줄 모르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들끓는 사회주의 건설장으로 경제선동의 길을 이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채옥희는 윤정희와 한식술이 되었다. (왼쪽에서 첫번째)

여성국제축구심판원 김은향

축구는 특이한 매력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고있다. 전인류를 끌어당기는 축구 경기에서 심판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기에 국제축구연맹에서는 국제심판원자격심사기준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국제축구연맹이 선정한 국제축구심판원들중에는 조국의 기관차체육단 축구심판원 공훈체육인 김은향도 있다.

할아버지때부터 축구와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가정에서 자라나 어려서부터 축구를 시작한 그는 국가대표팀선수로 활약하면서 재능있는 축구 선수로 두각을 나타냈다.

공격과 방어능력을 다 갖춘 그는 속도가 빠르고 감각이 좋을뿐 아니라 정확한 위치차지로 팀의 전술적운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특히 2013년과 2015년에 진행된 동아시아컵 여자축구경기대회에서 팀이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그때 팀을 담당하였던 감독의 말에 의하면 김은향의 뛰어난 경기감각은 축구기술이 높은데도 있지만 사전준비를 착실히 한데 비결이 있다고 한다.

김은향은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누구보다 상대팀에 대한 료해를 깊이 하였다.

상대팀들의 경기록화장면을 보면서 경기체제와 대항할 선수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발생할수 있는 경기상황에 따르는 위치선택도 예상해보았다.

이것은 곧 경기에서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후 축구심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다.

다년간의 선수생활을 마친 김은향은 국제축구심판원이 될 결심을 품고 국제축구연맹이 제시한 모든 지적,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피라는 노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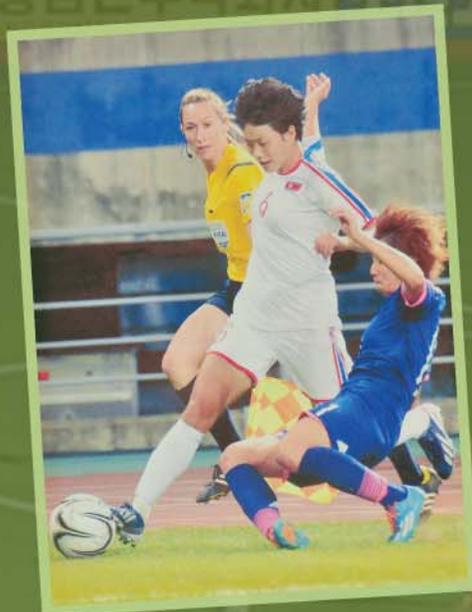
훈련 또 훈련, 학습 또 학습...

그는 2020년 국제축구연맹이 제시한 모든 지표에서 합격하고 국제축구심판원자격을 받았다.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축구경기들에서 그는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경기정황에 따르는 공과 선수들의 이동에 대한 예측과 그에 기초한 정확한 위치선택, 선수들의 경기박자와 룰동에 맞추어 끊임없이 달리면서

김은향의 국제경기참가경력

- 2007년 제1차 아시아청소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
- 2008년 제1차 세계청소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
- 2013년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 2013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
- 2014년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
- 2015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
- ...



2015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 경기장변중에서(가운데 김은향)



천태만상의 상황에 따르는 신속하고 올바른 결심으로 그는 경기를 잘 이끌어나갔다.

경기관찰을 깊이있게 하며 심판총화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연구하는 태도, 축구경기 전과정을 평가하는 그의 능력을 보며 축구전문가들은 랭정한 심판원이라고 평하고있다.

2022-202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 녀 1부류축구연맹전에서 심판원으로 활약한 김은향은 여러 경기들을 로숙하게, 세련된 솜씨로 운영하였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녀자1부류축구연맹전 첫 경기 전반전이 거의 끝나가던 44분경이었다.

공격을 하던 팀의 공격수가 상대팀 방어수와 접전하면서 넘어졌다.

공격수가 속한 팀에서는 상대팀의 반칙이라고 하면서 밝혀줄것을 요구하였다.

주심인 김은향은 공격수의 속임동작이 명백하지만 요구대로 경기록화장면을 되돌려보았다.

결과는 주심의 판단이 옳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그는 속임동작을 하여 경기를 지연시킨 공격수에게 빨간막지를 들어보여 퇴장시켰다.

주심의 단호하고도 정확한 판정을 보면서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은 실력있는 심판원이 다르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현재 그의 심판활동은 많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선수들과 감독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관중모두가 축구의 매력을 느끼고 즐기며 배우는 마당으로 되게 하는것, 경기결과에 대한 사소한 의문도 없이 경기의 막이 내리게 하는것, 이것이 김은향심판원이 심판사업에서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다.

김은향심판원은 《심판원의 실력, 인격, 도덕이 뛰어나고 고상하면 할수록 그가 속한 민족, 국가가 축구를 사랑하는 세계 수억만 사람들의 가슴속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될것이다. 조국의 명예와 나라의 축구기술발전을 위해 계속 힘차게 달리겠다.》라고 자기의 결심을 피력하였다.

그는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이며 공훈체육인이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특색있는 보가지 요리 봉사로

평양의 자랑 옥류관에는 요리전문식당이 있다.

여러 민족료리와 함께 철갑상어료리, 자라료리 등 희귀하고 영양가가 높은 세계적인 명료리들을 봉사하는 이 식당에서는 최근 보가지요리를 특색있게 봉사해주고있다.

보가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양가가 높은 물고기이지만 독이 있어 가공하기 험치 않은 물고기로 알고있다.

하지만 보가지는 허한것을 보하고 습을 없애며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데 좋은것으로 전해져오고있다.

요리전문식당의 요리사들은 세계적인 명료리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가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다.

그들은 보가지료리와 관련된 지식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요리제법들을 부단히 익히고 숙련하였다.

보가지의 알, 내장, 피, 껍질에 있는 독을 1차가공할 때 순간에 제거하는것과 함께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여러 보조재료들도 배합하여 요리들을 하나하나 완성하였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보가지료리는 보가지탕, 보가지향채절임, 보가지회, 보가지감자졸임, 보가지양념구이, 보가지은행찜 등 여러가지이다.



보가지향채절임



보가지회



보가지탕



보가지감자졸임

이 요리들은 손님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고기맛이 좋것 좋것하고 신선하다.》, 《보가지탕은 다른 물고기탕들에 비해 맛이 산뜻하다.》

조동일요리사는 《식당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보니 국가에서는 진귀한 음식감들이 생기면

제일먼저 우리 옥류관에 보내주어 인민들이 그 맛을 먼저 보도록 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오늘도 옥류관 요리전문식당으로는 보가지료리에 맛을 들인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 철

다양한 기능성 구슬제품들을

룡흥일용품생산소에서 《진복》상표를 단 기능성구슬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지난 기간 생산소에서는 현실생활속에서 실용적이면서도 보건의적요구와 미학적요구가 결합된 기능성제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 생산소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전기석안마방신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능성구슬제품들을 내놓았다.

전기석안마방신은 여러가지 빛깔을 내는 구슬알들을 깔아주고 음이온-면적외선-생물전류를 발생시키는 전기석을 첨부하여 만든것으로서 발바닥자극효과로 인체의 산화를 막고 피를 맑게

하며 피흐름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어른들의 척추변형과 어린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평발에 대한 보조적치료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있다.

제품은 주체108(2019)년에 진행된 평양국제건강 및 가정용의료

기구부분 과학기술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생산소에서는 손바닥자극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편리성과 미학성을 갖춘 여러 용도의 구슬가방들과 각종 일용품들을 개발생산하여 녀성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이곳 종업원들은 보다 세련된 구슬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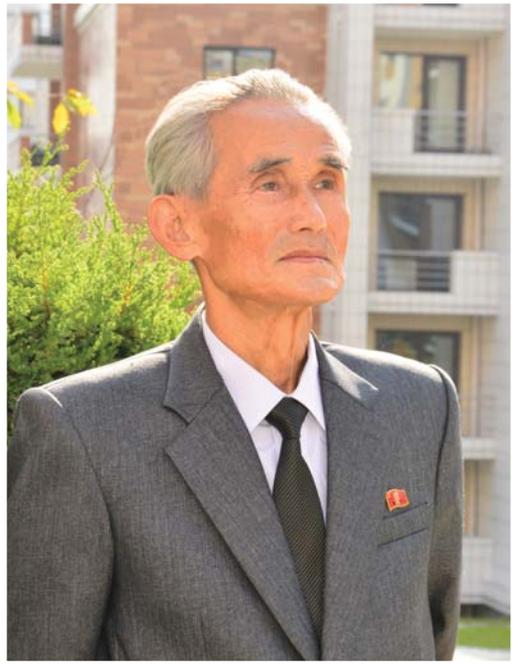
최근에만도 사람들의 색깔반응에 의한 심리변화와 미학적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방식과 사물함 등 여러가지 구슬제품들을 개발생산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생산소에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기능성제품발전추세를 깊이 연구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것을 지향하고있다.

미학성과 편리성이 보장되고 건강에도 좋은 구슬제품들의 개발과 생산으로 《진복》상표가 인민들속에서 더 친근하게 자리잡게 하자는것이 이곳 생산자들의 지향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그가 걸어온 길

수도의 보통강기술에 훌륭하게 일떠선 경루동의 궁궐같은 새집에 근로자들이 살림을 편지도 여러달이 흘렀다.

본사기자는 조국의 품에 안겨 또다시 새집을 받은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경공업성 경공업연구원 연구사인 김택수의 가정을 찾았다.

지난해 4월 17일은 경공업성 경공업연구원 연구사인 김택수에게 있어서 제일 잊지 못할 날들중의 하나이다.

그날 그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인 경루동의 35호동 15인민반 2현관 1층 2호집의 열쇠를 받아안았다.

집열쇠를 받아진 그의 눈가는 축축히 젖어 들었다.

희한하게 꾸러진 호화주택을 자기에게 무상으로 안겨준 나라의 은정이 너무도 고마워서였다.

그 은혜로움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눈앞에는 지난날 일본땅에서 흘러온 나날들이 안겨들었다.

여섯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온갖 잡일을 다하던 그의 부모들은 엄청난 학비로 하여 다른 자식들은 다 공부시키지 못해도 말이만은 공부시켜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다.

넷째였던 그도 형들과 함께 여기저기에서 샅일을 하며 만형의 학비보장에 여념이 없었다.

그때 그는 학교에 다니는 만형이 너무도 부러워 몰래 책을 펼쳐보며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모대기였지만 차마 부모들에게 자기 희망에 대해서는 말할수 없었다.

그런 심정은 손우의 형들과 누이동생도 마찬가지였다.

일본땅에서는 도저히 이룰수 없었던 그와 형들, 누이동생의 희망과 꿈은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실현되게 되었다.

조국에서는 그들에게 새집을 배정해주었고 자식들모두를 희망에 따라 대학에도 보내주었다.

김택수도 평양기계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퍼게 되었으며 졸업후에는 당시 경공업성의 기계연구소 연구사를 거쳐 실장으로 사업하였다.

그 나날 그의 가슴속에 고래친것은 어떻게 하면 나라의 방직공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를 내놓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 과정에 그는 국내에 흔한 비날론을 리용하여 털실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을 연구완성하여 현실에 도입하였으며 가위밥이나 고포를 모두 회수리용할수 있는 재생섬유생산방법과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도 성공할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김택수는 자기의 연구성과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치하의 교시를 주시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이날 그는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연구사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을뿐인데 그토록 평가해주시다니...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

그는 록화조성에 절실히 필요한 무토양잔디재배용영양포생산공정확립에 달라붙었다.

그 길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공장의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가며 탐구의 나날을 보내었다. 그러느라니 몇달에 한번씩 집에 들어가는것이 고작이였고 그때마다 자식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기가 일쑤였다. 마침내 그는 연구사업에서 성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해두해 세월은 흘러 어느덧 그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였지만 그의 탐구는 계속되었다.

당시 연구소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70살을

훨씬 넘긴 그의 건강을 넘려하여 좀 쉴것을 여러번 권고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기를 위해주는 집단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며 보다 힘을 내어 일하곤 하였다.

그의 노력에 의해 주체107(2018)년에 어느 한 편직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공정들이 꾸러져 연간 수십만m의 인조털들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다른 공장들에도 역시 새로운 염색공정이 꾸러져 큰 은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새로운 설비를 연구도입하여 생산성을 10배로 올리면서도 재자원화의 수준을 훨씬 높였다.

나라에서는 방직공업발전에 큰 기여를 한 그를 국가적인 대회에 불러주었고 공훈과학자로 내세워주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연구사로 일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가족과 함께



고향소식

약동하는 태천군을 찾아서

한드레벌

한드레벌이라는 이름은 지난날 이곳 농민들이 올망졸망한 뚝기논들에 물을 한드레씩 퍼올려 농사를 지었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드레벌은 위대한 장군님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천지개벽되고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옛 모습을 찾아볼래야 볼수 없게 되었다.

한드레벌에는 정리되기 전에 소가 들어가 논을 갈수 없는 뚝기논을 비롯하여 무려 1만 3 130여개의 올망졸망한 논들이 있었다. 로지정리후 약 1만개의 뚝기논이 3 200여개로 정리되었다.

논두렁의 길이는 무려 3 600여리였으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얼마전 평안북도중부의 대령강연안에 있는 태천군을 찾았다.

태천군은 조국의 오랜 군의 하나이다.

오늘날 태천군을 찾는 사람들은 이곳은 공기부터 다르다고 말한다.

산발마다 푸르려 설레이는 무성한 숲의 정취나 아담하고 산뜻한 읍거리도 그렇지만 고향산천을 살기 좋은 무릉도원으로 가꾸어가는 이곳 사람들의 드높은 열의를 어디서나 느낄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듯싶다.

읍지구에 들어서니 우리도 그것을 쉽게 느낄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군내일군들은 물론 주민들까지도 새해농사차비와 살림집건설 등으로 드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어 그들을 만나 보기란 조련치 않았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사업하는 리보배동포의 조카인 리영주녀성도 그러하였다.

그는 태천군 읍 127인민반에서 살고있었는데 60살을 훨씬 넘긴 몸이었지만 젊은이들 못지 않게 퇴비생산을 비롯한 영농작업과 살림집건설지원사업에서도 인민반적으로 앞장서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게 되니 자연히 우리가 중국방문과정에 만났던 열정적이고 다정다감

한 보배동포의 모습이 떠올랐고 동포와 마찬가지로 영주녀성 또한 모색도 그렇지만 애국심도 신통히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주녀성은 최근시기에 태천군이 농사와 국토관리, 농촌살림집건설, 보건사업 등에서 도의 지경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손꼽힌다고 하면서 비결은 군내주민들이 하나와 같이 동원되어 고향을 가꾼데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와 헤어져 한드레벌에 나가보니 일매지게 규격화된 전야마다에서는 새해 농사차비가 한창이고 산기슭의 양지바른 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농촌살림집

건설이 진척되고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군의 일군인 현유일은 군의 농사조건과 기상기후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해마다 좋은 작황을 이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비결은 농장들마다에서 지력을 높이고 종자개량을 비롯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에서 군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펼치고 그 수행방도들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을 진리로 간주하고 그대로 관철하니 농사도 잘되었고 농촌살림집건설이나 국토관리사업은 물론 어디에서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하였다.

군에는 양어, 버섯, 축산기자들이 꾸려져있고 자기 지방의 원료를 리용하여 옷질, 초물공예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태천군은 강하천이 많다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군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있다.**



태천청년4호발전소



태천군산림경영소의 양묘장은 군의 수림화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농촌살림집들과 유치원, 문화회관, 병원 등 많은 건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거나 개건되어 군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다.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해방전 태천군은 락후한 농업지대였으며 단순한 생활필수품마저 만들지 못하는 뒤떨어진 군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중간지대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농업지대로, 중앙공업과 여러 부문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지난해 이곳 사람들은 농촌살림집건설의 1단계 목표로 제시된 백수십세대의 농촌살림집건설을 도적으로 제일먼저 끝내였는가 하면 도로들을 표준도로로 건설하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방야계공사, 다

리공사, 산사태가 발생할수 있는 위험개소들에 대한 응벽쌓기 등을 진행하여 군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군농기계작업소를 현대적으로 개건하는것과 함께 군산림경영소의 모체양묘장을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나무모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대령강의 흐름을 따라 계단식으로 건설된 태천2호, 3호, 4호발전소들에서는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태천지구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여유전력을 국가전력계통에 넣어주고있다.

우리는 그들이 이룩한 창조



물들을 보며 이곳 사람들의 승벽심이 여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그들의 리상이 매우 높은것이다.

그들은 도적인 본보기라는 평가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하나를 해놓아도 전국적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할수 있게 하고있었는데 그것이 태천군사람들의 지



향이였고 목표였다.

개건된 식료공장과 버섯공장, 종이공장, 병원과 유치원, 미래원 등을 돌아보면 그것을 대번에 느낄수 있었다.

군병원과 군식료공장만 보아도 그러하였다.

병원은 내외부가 훌륭히 꾸려져있었으며 의사들의 수준도 높다.

군식료공장은 공장대로 안팎으로 흠잡을데 없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름, 된장, 사탕, 파자 등은 그 질이 좋아 누구나 찾는 제품으로 되고있다.

군을 돌아보면 볼수록 레일을 향해 전진하는 이곳 사람들의 높뛰는 숨결이 느껴졌고 그로 하여 우리의 감동은 참으로 컸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관철해가고있는 이곳 사람들의 드높은 열의가 있어 태천군의 레일은 더 아름답고 훌륭해질것이라고.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동포의 애국지성이 깃든 병원



김만유동포

조국에서는 김일성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 조국통일상과 인민의사칭호, 교수, 박사의 학위학직을 수여하였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지구에는 김만유병원이 자리잡고있다.

이 병원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주체72(1983)년 4월에

착공되어 3년만에 훌륭히 세워졌다.

조국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병원을 건설하고싶어하는 김만유동포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고 훌륭히 실현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병원을 평양시에 자리잡게 하시고 병원부지선정과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사업에 걸쳐 수십차례나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된 병원이름을 《김만유병원》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동포를 명예원장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그의 애국지성을 전하는

충성비도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김만유병원은 주체75(1986)년 4월 13일에 개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해 6월 28일 몸소 곳은비내리는 속에서도 병원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병원을 돌아보시면서 병원이 잘 꾸러졌다고, 빨리 환자를 받아 치료사업을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만유병원은 기본건물(1호동)을 모체로 하여 여러개 호동으로 이루어져있다.

1호동에는 구급소생과와 입원치료실, 실험실들이 있으며 2호동에는 외래진료실들과 내시

경검사실, 물리치료실들 그리고 10개의 수술장과 혈관조영촬영실이 있으며 중환자를 위한 집중치료실들이 꾸러져있다.

또한 진단치료실들과 기능검사실을 비롯한 일반실험검사실들이 병의 진단 및 치료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있다.

지난 수십년간 김만유병원에서는 나라의 보건정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는 치료예방사업과 의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뜨거운 정성과 높은 의술로 구급환자들과 최종중환자들, 만성질환자들에게 대한 치료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병원의 심장혈관수술, 혈관조영술, 복강경수술수준은 국내에서 손꼽히고있다.

병원은 조국에서 처음으로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수립하였다. 현재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전국의 도, 시, 군 치료예방기관들과 련계를 가지고 협의와 교육, 수술지도도 진행하고있다.

병원에서는 교수, 박사를 비롯한 200여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배출하였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어 병원문을 나서는 조국인민은 병원구내에 세워져있는 충성비를 무심히 보지 않는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은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전호에서 계속)

해외교포운동의 붉은 화살표가 그어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언젠가 평양시교외에 자리잡고 있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실 때였다고 합니다.

이날 사적지에 깃든 하많은 사연을 더듬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한덕수의장이 이곳에 와보았는가고 물으시고는 총련일군들이 이곳에 와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 그들이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습니다.

후날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나도 가보았는데 그곳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주석님께서 사신을 헤치고 찾아온 재일조선인

련락원을 만나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신 곳이었습니다.

한의장동지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있는 내용이였지만 그곳 사적지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나는 력사의 그날이 눈앞에 방불히 어려와 솟구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주체41(1952)년 12월 2일 밤, 일본에서 온 재일조선인련락원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그를 만나주시였다고 합니다.

이날 련락원의 보고와 한덕수동지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주석님께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방안을 거니시였습니다.

이윽하여 위대한 주석님께서

는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고 일본혁명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우는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내 가슴아프신 어조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날 민전의 로선상과오와 투쟁방법상결함,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지금처럼 할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데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을 공화국정부의 지도밑에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오늘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재일

조선인운동을 구원하는 길이며 동포들의 념원과 지향에 맞는 참된 애국의 길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사람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뚜렷한 리론이 없었습니다. 해외교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해외교포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주석님께서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시 자리에서 우리가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전환한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위대한 주석님께서 자기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려는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혁명가들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기에 우리 민족이 것처럼 고대하던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맞이할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지난 5월 총련 제25차 전

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하신 말씀에도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전환할데 대한 방침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주체적립장,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해외동포들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결부시키고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끝없는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것으로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옳바른 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재일조선인운동은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할수 있었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 조선혁명을 위한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이 제시된 그날의 최고사령부의 작전실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발걸음을 뻐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주석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재일조선인들은 해외공민권을 영원히 잃은 일본의 소수민

족으로 마가울의 가랑잎처럼 뿔뿔이 흩어져버렸을것입니다.

진정 위대한 주석님께서 계시였기에 우리 재일동포들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의 력사나 고전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해외교포운동의 고귀한 진리를 처음으로 받아안고 그 덕을 누린 복받은 해외공민으로 되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는 비단 위대한 전승신화가 창조된 력사의 땅만이 아니였습니다.

작전지도를 한 벽면에 다 걸수 없어 다음벽면에까지 걸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크지 않은 최고사령부 작전실은 위대한 전승의 화살표만이 아닌 재일동포들의 새로운 운명전환, 재일조선인운동의 승승장구를 위한 영원한 승리의 붉은 화살표가 그려진 뜻깊은 곳이였습니다.

나는 가릴처절한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조국과 해외의 두 전선을 다같이 보살피시며 전쟁의 운명과는 거의나 인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재일동포들문제로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주석님은 진정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라는 생각으로 눈굽을 적시군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민속명절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즐겁게 맞이하여온 민속명절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은 음력 1월 15일을 새해들어 처음으로 맞는 음력보름이라는 뜻에서 《대》자를 붙여 《대보름》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달의 보름날에 비하여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정월대보름명절은 보통 1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14일은 《작은 보름》, 15일은 《대보름》이라고 하였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진행하였다.

14일에는 농사의 시작을 알

리는 행사를 위주로 하였는데 이날 난가리대를 세우는 것과 함께 일찍 퇴비를 논밭에 내는 풍습도 있었다.

대보름날 낮에는 지방에 따라 바줄당기기, 연피우기, 바람개비놀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다채로운 놀이들을 진행하였다. 가장 이채로운것은 대보름날 저녁의 달맞이이다.

이날 떠오르는 달을 먼저 본 사람에게는 행운이 차례진다고 하면서 동리사람들모두가 뒤동산에 올라가 솟아오르는 둥근달을 구경하였다.

정월대보름을 맞으며 특색있는 음식도 만들어먹었다.

정월대보름날의 대표적인 명절음식으로는 귀가 밝아지게 한다는 귀밝이술과 오퍩밥, 약밥, 9가지 마른나물음식, 엿 등이 있다.

오퍩밥은 다섯가지 알곡을 섞어 지은 밥으로서 오퍩잡밥이라고도 하였는데 알곡종류는 시기와 지방에 따라 서로 달랐다.

일부 지방에서는 오퍩밥을 김, 배추 등으로 싸서 먹는 풍습도 있었는데 이것을 《복쌈》이라고 하였다.

오늘도 이러한 풍습은 련련히 이어지고있다.

올해 정월대보름은 2월 5일이다.





장운섭로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박혜영녀성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우리는 장대길과 그의 안해의 안내를 받으며 넓고 시원한 공동살림방과 잇닿은 아담하고 정결한 부엌을 지나 량벽면에 조선화, 판화, 유화들이 걸려있는 복도로 들어섰다.

마치 미술박물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듯한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미술작품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 크지 않은 한점의 판화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흑백으로 명암의 색대조를 주면서도 현실을 함축하여 묘사대상의 조형적특성을 훌륭히 형상한 판화 《달밝은 밤의 민속놀이》였다.

이때 장대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작품은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판화가인 황인재선생이 1980년대에 저의 아버지에게 준 것입니다. 밝은 달빛아래서 민속놀이를 즐기는 미술작품속의 저 사람들처럼 이제 며칠후에 맞게 되는 정월대보름날에 우리 인민반에서도 율놀이와 장기와 같은 민속놀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왕 출전할바에는 가정의 명예를 걸고 이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다른 집들보다 남정들이 많은 장대길의 가정에서는 이채로운 장기경기가 시작되었다.

평양미술대학 학생인 장대길의 둘째아들 장건이 할아버지와 먼저 경기를 하게 하였다.

장대길은 《선수》들을 응원하듯 칼도마소리를 장단맞게 울려가는 안해를 바라보며 《여보, 이번 명절에 경루동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약밥솥씨를 보여주었으면 좋겠구만.》 하고 넌지시 말



하였다.

그러자 박혜영녀성은 귀뿌리를 빨갛게 물들이며 싫지 않은듯 《참, 당신두...》라고 말끝을 흐리었다.

실은 경루동에 이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박혜영녀성은 정월대보름명절날마다 약밥을 무드기 해놓고 동네사람들과 나누어먹곤 하였다.

그가 만든 약밥은 찰밥에 꿀과 참기름을 두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 껍질을 벗긴 밤과 대추를 넣어 쪄냈는데 진한 밤색에 특이한 맛과 향기로 하여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고 한다.

《매일저녁 퇴근길에서 나날이 동글어져가는 달을 바라보며 아이때처럼 정월대보름명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장대길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창가로 이끌었다.

밤하늘가에 두둥실 떠오른 밝은 달이 조용히 미소지으며 우리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이제 정월대보름날 한해중 제일 크고 아름다운 달이 환히 뜨게 되면 경루동의 주인들도 여러가지 민족음식을 맛보고 민속놀이를 즐기며 달맞이를 하게 될것이다.

하다면 그날 하늘중천에 솟은 밝은 달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간절히 바랄것인가. 우리는 장대길가정의 행복한 모습속에서 여기 경루동만이 아닌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게 될 천만민민의 똑같은 마음을 안아보았다.

그것은 수수천년 인민이 바라오던 보금자리, 사회주의락원을 가꾸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와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일것이라.

행복한 경루동주인들이 맞게 될 정월대보름날의 달맞이풍경을 마음속에 그리며 우리는 장대길의 집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 철

장대길가정을 찾아서

설명절이 지나고 정월대보름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어느날 저녁 우리는 보통강기슭의 경루동을 지나게 되었다.

화력-서평양로선 무쾌도전차정류소앞에서 우리는 몇년전 취재길에서 면식을 익힌 교육도서출판사 아동지능교육도서연구소 소장 장대길을 만났다.

그는 자기네 가정이 경루동에 보금자리를 폈다고 하면서 집에 들렀다 가라고 우리를 청하였다.

그의 집은 경루동 9인민반 1현관 8층 1호였다.

장대길이 자기 집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녀성의 세련미가 넘치는 그의 안해가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공동살림방에서 장대길의 부모들부터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올해 81살인 장대길의 아버지 장운섭로인은 무척 정정하였다.

그는 몇해전까지만 해도 교육신문사에서 수많은 동화그림책과 어린이지능계발도서들을 창작한 미술가이며 교육자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인 장대길도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자기의 재능과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결국 우리는 한지붕아래서 어제와 오늘의 두 아동미술가들을 만났셈이었다.

《그럼 천천히 집구경부터 하십시오. 며늘에야, 어서 안내해드려라.》



장대길

교육도서출판사 아동지능교육도서
연구소 소장

장대길은 유명한 아동그림책창작가들중의 한명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식을 둔 부모들치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이다.

주체89(2000)년 전 10권으로 된 아동그림책 《너도 나도 하하하》의 제1권을 내놓아 독자들에게 첫선을 보인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어린이지능계발》(전 20권), 《아시는지요》(전 10권), 《나 혼자 해요》(전 32권), 《동물친구들》(전 3권)을 비롯하여 수십종에 수백권에 달하는 도서들을 내놓았다.

장대길은 오늘 평양미술대학에 자주 초빙되어 강의를 하곤 한다. 뿐만아니라 아동심리학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부모들과 교양원들도 찾아오고있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락랑박물관

지난해 9월 평양의 락랑지구에 락랑박물관이 세워졌다.

박물관은 반만년의 민족사를 옹바로 정립해 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시려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있는 락랑문화에 대해서도 후세들이 잘 알도록 박물관을 꾸릴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박물관건설과 관련한 형성안과 설계안들, 학술안들을 지도해주시었다.

락랑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청천강이남으로부터 레성강류역에 이르는 중서부조선일대에서 발생발전하였다.

시기적으로는 B.C. 3세기이전부터 A.D. 4세기 전반기까지에 해당된다.

락랑문화의 발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2층으로 된 박물관은 건축형식부터 고대시기에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창조된 배집지붕형식으로 된 특색있는 건물이다.

1층에는 락랑거리(당시)형성계획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2층에는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전통의 일단을 보여주는 락랑문화의 유적유물들이 여러가지 직관자료들과 함께 진렬전시되어있다.

여기에는 성곽과 무덤, 무기무장류와 마구 및 수레부속품, 몸치레거리와 화장용구류, 용기류, 당시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다. 그 수는 백수십종에 2 000여점에 달한다.



야외에는 지금까지 락랑구역일대에서 발굴한 무덤 가운데서 학술적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무덤(묘조)들이 있다.

무덤부분에는 락랑문화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덤의 변천과정을 뚜렷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7기무덤의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였다.



전시된 유물들중에서





허균과 《홍길동전》

허균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름난 작가, 학자이다. 한성의 량반가정에서 태어나 참찬의 벼슬을 지냈다.

그의 아버지 허엽과 두 형인 허성, 허봉, 누이 허란설현과 그의 스승이었던 리달은 다 시와 문장으로써 당대에 이름을 떨친 문인들이었다.

허균의 성장과 창작에 많은 영향을 준것은 리달이었다.

리달은 당시 진보적시인으로서 이름이 높았으나 첩의 자식인것으로 하여 등용되지 못하였다.

허균은 가정의 학구적분위기와 리달의 직접적 영향으로 당대에 이름있는 진보적인 작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허균은 산문, 특히 소설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둘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소설 《홍길동전》을 창작하였다.

이 소설에서 사회적모순이 첨예화되고있던 17세기의 현실생활에 토대하여 적서차별의 가혹성과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농민봉기군의 투쟁을 진실하고 폭넓게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진보적소설문단을 대표하는 재능있는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허균은 자기의 창작과 저술활동을 통하여 모순된 봉건사회의 현실을 비판하였으며 《홍길동전》을 비롯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17세기 조선의 진보적소설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 *



주체 1111 (2022)년 9월 촬영

락랑문화유적에서 발견된 무기무장류에는 좁은놋단검과 쇠창끝, 쇠가지창, 쇠뇌(기계활), 활과 활촉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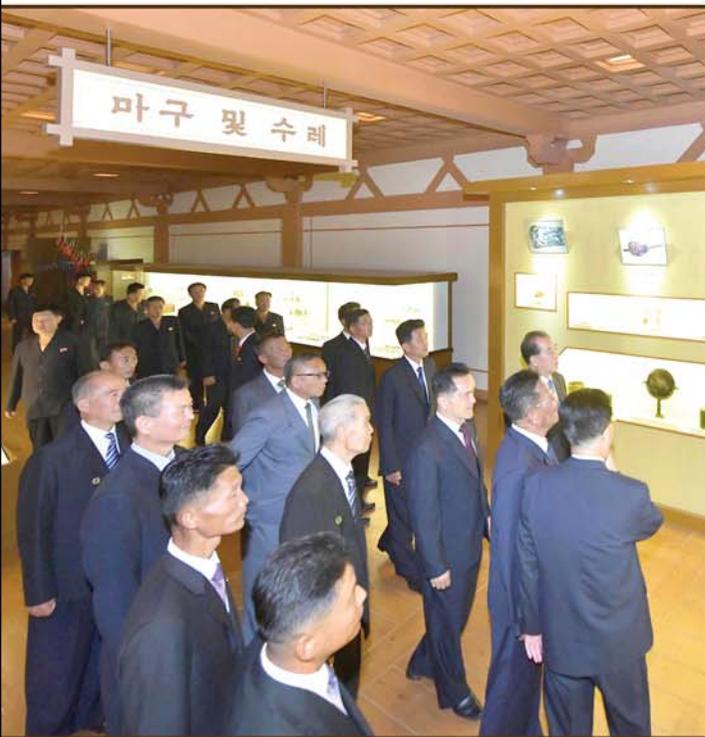
쇠뇌를 본 다른 나라의 무기전문가는 《그 구조가 교묘한것으로 하여 현대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2천년전의 고안이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박물관에는 이외에도 청동야금기술과 제철제강기술, 금속세공기술, 제사 및 제지기술, 유리생산기술, 회화 및 조각공예술 등 여러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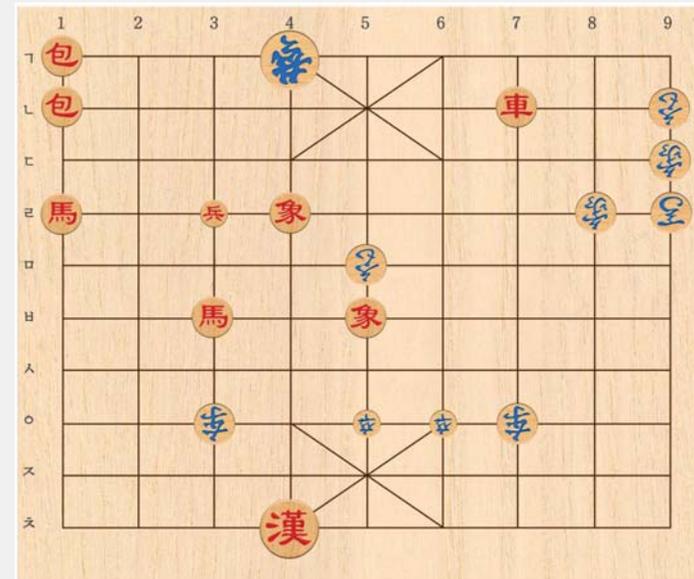
그런가 하면 박물관건물의 주위에는 고분들이 있으며 찾아오는 참관자들을 위한 실내민속놀이장과 야외민속놀이장, 휴식장들과 민족음식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갖추어져있다.

지금 락랑박물관으로는 참관자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장기수풀이 (2)



장기격언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
주동적인 공격만이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는 뜻이다.

《장훈 한번에 열두수 얻는다》라는 말은 이 격언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것으로서 오직 공격을 하여야만 방어에서도 주도권을 쥘수 있다는 교훈을 말해주고있다.

장기수풀이 (1)에 대한 답

- ㄱ7차ㄴ5, ㄷ4궁ㄴ5, ㄹ5말ㄷ4,
- ㄴ5궁ㄴ5, ㄷ4말ㄷ6, ㄱ5궁ㄴ5,
- ㄹ5차ㄴ8, ㄱ6말ㄴ8, ㄴ3병ㄴ4,
- ㄴ5궁ㄴ6, ㄷ6말ㄴ7, ㄹ6차ㄴ6,
- ㄴ4병ㄴ5,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백 제

조선민족사의 첫 봉건국가이며 동방의 천년강국이었던 고구려와 동시대에 존재한 백제는 삼국시기 봉건국가들중의 하나이다.

백제는 B.C. 1세기말엽부터 A.D. 660년까지 지금의 조선 반도서남부일대를 자기의 활동 무대로 삼고 역사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백제봉건소국의 시조 온조는 고구려건국시조 동명왕의 아들이었다.

B.C. 3세기중엽 고구려의 왕위를 물려받을수 없었던 그는 여러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떠나 한강유역에 정착하여 새 나라를 세웠

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백제봉건소국이었다.

온조는 나라를 세우던 당시 국호를 열명의 신하가 보좌한다고 하여 《십제》로 달았다가 후에 백성들이 자기를 즐겨 따랐다고 하여 《백제》로 고쳤다.

온조에 의해 세워진 백제는 당시 우리 나라 고대국가인 진국의 구성부분이었던 마한에 종속되어있는 자그마한 소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물산이 풍부한 한강유역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고 고구려의 선진적인 정치제도를 그대로 본딴것으로 하여 백제소국의 발전은 마

한의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척되었다.

백제는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여 B.C. 1세기말엽에는 레성강이남, 금강이북지역을 차지하고 마한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되었다.

그후 1세기초에는 종주국 마한(진국)을 멸망시키고 오늘의 전라북도지역을 다 차지하였으며 4세기중엽에 이르러서는 오늘의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북도의 전체 지역과 충청북도, 강원도, 황해남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는 등 최강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과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강화로 사회계급적모순은 심화되고 국력은 약화되어 660년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백제는 고구려의 선진적인 정치, 경제, 문화제도의 영향 밑에 사회생활전반에서 다방면적인 발전을 이룩한 강력한 봉건국가였다.

백제통치기구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중앙통치기구였는데 그것은 최고통치자인 임금 중심으로 하여 꾸려져있었다.

임금의 밑에는 그의 정치를 돕는 중앙행정통치기구가 있었고 그밑에 지방통치기구를 두었다.

일찍부터 농업이 발전하였던 백제에서는 쇠보습, 쇠괭이, 쇠낫과 같은 철제농기구들이 농업에 광범히 리용되었으며 같은 땅에서 물을 대어 논농사도 하고 발작물도 재배하는 《수륙겸종》법을 널리 실시하였다.

벼, 보리, 밀 등 5곡과 갖가지 과일들, 여러가지 남새들도

많이 재배하였으며 축산업과 잡업도 발전하였다.

백제에서의 수공업은 봉건국가의 관청에서 운영하는 관영수공업과 개별적인 상공인들이 경영하는 민간수공업 등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철제강과 금속공예, 기와 및 벽돌제작과 돌가공, 목조업, 직조업 등 수공업분야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추동하였다.

이 시기 백제의 칼이 유명하였는데 《백제칠지도》로 불리는 칼과 《명광개》라고 불리는 갑옷은 다른 나라들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기였다.

백제의 교통운수와 상업도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에 있었고 천문학과 의학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도 다방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백제는 건국 이래 수세기동안

내려오면서 산성과 도성, 궁전과 루각, 불교사원과 무덤 등과 같은 당시로서는 규모가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수많이 건설하였다.

백제인민들은 생활풍습에서도 조선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적극 계승하면서도 고구려의 선진적인 복식제도와 장례풍습 등을 적극 받아들여 조선민족의 단일성을 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이 백제는 삼국시기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지울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황금석



상 식

활공기-비거

비거는 16세기말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이 시작되자마자 선조들이 만들어 군사통신력에 처음으로 쓴 활공기이다.

1592년 10월초 일본침략군은 조선을 불의에 침공하여 부산에 상륙한데 이어 경상남도의 진주성을 포위공격하였다. 2만의 일본군대의 포위공격을 받게 된 수천명의 조선군대는 전투정황을 상부에 빨리 알리기 위하여 산성의 높은 곳에서 비거를 날리였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았고 먼거리활공에 유리한 기류조건이 조성되어있었으며 비거가 높은 곳에서 날기 시작하였기때문에 사람을 태우고 30리를 날수가 있었다.

비거는 여러 사람이 탈수 있게끔 목재와 가죽을 리용하여 만든것인데 그 생김새는 나래치지 않고 등등 떠있는 상태의 수리개나 따오기모양으로 되어있었다.

비거의 날개면적은 비거 그자체와 신는 짐의 무게를 합친것보다 더 큰 오를힘을 내도록 수십m로 되어있었다.

비거의 중심부에는 날개를 움직이는 장치, 바람을 만드는 풀무와 그를 동작시키는 장치, 바람을 저장했다가 내쏘는 공기주머니와 그를 동작시키는 장치 등이 설치되고 이 장치들을 다루는 사람 4명이 앉을 자리와 조건이 갖추어져있었다.

비거동체의 아래쪽에는 땅에서 달릴수 있도록 수레바퀴가 달려있었다. 비거(나는 수레)라는 이름은 이로부터 생긴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비거와 같은 나는 수단을 만들어서 날린 나라는 없었다.

* * *



중세 여성화가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16세기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정서로 개성적인 화풍을 창조한 당대의 이름있는 녀류화가였다.

신사임당은 그림뿐 아니라 글씨와 수예 등에도 능하였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짚나는대로 그림그리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7살에 벌써 15세기 유명한 화가였던 안견의 풍경화의 화법을 터득하였다.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에는 여성적인 섬세한 감정과 정서가 잘 표현되어있었다. 그는 웅장한 산밭이나 허황한 신선그림보다 포도, 란초, 참대, 매화, 오이, 풀벌레, 나비, 물고기, 잠자리 등 가정의 여성들이 늘 가까이 대하는 곤충과 물고기들 그리고 식물을 특별히 잘 그렸다.

특히 옛사람들이 《사임당의 화첩을 보니 과연 그의 그림들인 꽃, 오이, 곤충, 나비, 벌 등이 모두 살아움직이는듯하여 그림을 보는것 같지 않았다.》고 평가한것은 그의 그림의 절묘함과 신비함을 그대로 말해주는것이다.

언제인가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야, 그림이란 뜻이 깊게 그려야 한다. 꽃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꽃을 사랑할수도 없고 꽃을 아름답게 그릴수도 없는 법이란다. 그림을 뜻이 깊게 그리자면 민족의 슬기로운 력사가 아로새겨진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낄줄 알아야 한다. 이 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그린 그림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는 법이란다. 아버지는 네가 그림그리는 일로 한생을 빛내일것을 바란다. 아버지는 수수천년이 지나 이 땅에 태어날 후손들도 너의 화풍에서 애국의 그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깊이 간직하도록 했으면 한다.》

아버지는 딸에게 사임당이라는 의미심장한 호를 지어주었다.

《사》자는 어떤 학문의 뛰어난 기예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뜻하고 《임》자는 그러한 신임과 의무를 지녔다는것을 말하며 《당》자는 그러한 풍격과 임무를 지닌 큰사람을 의미하였다.



《가지》(45×25cm) 종이·채색

이렇게 되어 그는 《사임당》이라는 호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일화들이 전해지고있다.

신사임당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어느날 먼 친척벌되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있다는 기별을 받고 거기에 가서 일손을 거들어주었다. 그가 잔치음식을 차리고 음식상을 나르느라고 분주히 돌아가고있는데 한 녀인이 방구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근심스럽게 바닥만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입고있는 치마를 자꾸만 매만지고있는것이였다.

신사임당이 그에게 다가가 무엇때문에 그러느냐고 상냥하게 물으니 그 녀인은 이웃집에서 빌려다입은 옷에 고기국물이 뒹겨 어지러워졌다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신사임당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신사임당은 곧 녀인을 데리고 조용한 방안으로 가서 치마를 갈아입힌 다음 벗어놓은 치마의 말기를 뜯어 주름살을 정히 폈다. 그리고 채색감을 문힌 붓을 그우에 가져갔다. 녀인은 그러지 않아도 넓어진 치마에 울긋불긋 색칠까지 해놓으면 영영 돌려줄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그러나 이미 쭈어놓은 죽이라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볼뿐이였다.

신사임당은 만시름을 다 잊어버린듯 그림의 세계에 깊숙이 잠기여 팔과 손목을 유연하게 놀리며 그림을 그려나갔다. 가볍게 휘두르는 붓끝이 한고비를 돌면 포도 한송이가 생겨나고 또 한번 붓끝을 놀리면 푸른 잎과 줄기가 뻗어나갔다.

그와 동시에 넓어진 자리들이 하나하나



《수박》(34×28.2cm) 종이·채색



《포도》(32×22cm) 종이·먹

왕성탄을 지킨 박다지

흔적을 감추었다. 그가 그림을 다 그리고 붓을 놓으니 티 한점 없는 바탕에 방금 마당에서 뿌리채 떠다가 심어놓은듯한 포도나무가 그려졌다.

싱싱한 줄기와 푸른 잎이며 소담한 열매들을 자랑하는 그 포도나무야말로 청신하기 그지 없었다.

신사임당은 그림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너인에게 그림을 저자(시장)에 내다팔라고 권고하였다. 너인은 그 권고를 받아들여 곧 그림을 저자에 내다걸었더니 장사꾼들이 저마다 사겠다고 값을 서로 올려 새 비단치마를 사고도 많은 돈이 남게 되었다.

너인이 사례를 하려고 하자 신사임당은 손을 저으면서 사양하였다.

그후부터 그 너인은 신사임당에게서 그림그리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중의 한폭이 200여년이 지난 18세기 어느한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있었다. 그림내용인즉 포도잎에 벌레가 붙어있는 것이었다. 어느해인가 지루하게 내리던 장마비가 멎고 밝은 해빛이 쏘이였다. 집주인은 신사임당의 그림에 누기가 찻는지라 그것을 해빛에 말리려고 마당에 반듯이 펴놓았다.

집주인도 늘쌍 보아오던 그림이었지만 정작 펴보니 포도잎사귀에 붙어있는 풀벌레가 신통히도 살아움직이는것만 같았다.

주인이 포도나무시렁을 손질할겸 잠깐 자리를 뒀을 때 마당가에서 돌아치던 닭이 그림있는데로 가더니 《풀벌레》를 부리로 쪼았다.

현재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조선화 《가지》, 《물오리》, 《쏘가리》, 《기러기》, 《포도》, 《련못에 있는 백조》 등 그림들에는 사물에 대한 그의 치밀한 관찰력과 풍부한 표현력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신사임당은 훌륭한 화가였을뿐 아니라 현숙한 부인으로서 자식들을 훌륭히 키운 어머니의 모범으로 력사에 기록되어있다. 특히 네 아들중에서 셋째아들인 룡곡(리이)에 대한 각별한 정성은 후날 그가 나라의 인재로 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룡곡이 3살때 말과 글을 함께 가르쳤고 고상한 회화의 진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쳤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정과 정서의 소유자인 신사임당은 이렇듯 중세의 이름난 녀류화가로, 또 자식들을 잘 키운 훌륭한 어머니로 그 이름이 후세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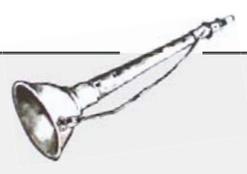
상 식

새 납

새납은 조선민족관악기의 하나이다. 민족관악기중에서 음향이 가장 큰 악기로서 일명 대평소라고도 불려왔다. 새납은 고려말부터 널리 리용되었다. 초기에 새납은 군악에 많이 쓰이었고 점차 민간에 보급되면서 농악에 리용되어 선율을 담당하였다. 새납은 그 구조와 재료에서 다른 민족악기들과는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새납은 박달나무로 만드는데 취구부분과 나팔은

원추형금속(동)관으로 되어있다. 관의 앞면에 7개, 뒤면에 1개의 소리구멍이 있다. 끝부분에는 음량을 확대하기 위한 나팔이 붙어있고 취구에는 조롱목이 있다. 새납은 오늘도 농악무를 비롯한 우리 인민의 가무에서 중요한 반주악기로 되고있으며 배합관현악에도 쓰인다.

* * *



임진조국전쟁때 평양성을 지켜싸운 평양의 10장사들중에는 지혜로 많은 공적을 이룩한 박다지도 있었다.

박다지의 이름은 본래 박역이였으나 지혜가 많다고 하여 《다지》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왕성탄을 지킬 때에도 박다지의 지혜는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동강건너편에 왜적들이 기여들자 평양성의 군사와 의병들은 먼저 적들이 건널수 있는 대동강의 여울목을 지키기로 하였다.

장사들은 적들과 싸울 준비가 채 갖추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박다지에게 의병부대를 데리고 먼저 가서 여울목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장사들은 성안에서 화살과 창, 칼을 준비해가지고 박다지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라. 먼저 간 박다지는 왕성탄의 여울앞에 진을 친것이 아니라 그 아래 강물이 깊은 곳에다 기발을 꽂고 흥장을 만들고있었다.

《여보게 박형, 대체 어떻게 하자는거요?》

《왜? 진을 잘못 치고있는것 같은가?》

《잘못 치다뿐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왕성탄은 여기가 아니라 저 웃쪽이란 말이요.》

《아니, 평양사람인 내가 왕성탄이 어딘질 모를가봐?》

《그럼 왜 여기다 진을 치는 거요?》

《왕성탄을 지키자구.》
《예? 왕성탄을 지키려면 왕성탄앞에 진을 쳐야지 적들이 건너오지도 않는 이 깊은 곳에 진을 칠 필요가 있소?》

성미가 날카로워 누구앞에서나 할 말을 하고야마는 당돌이라는 별명이 붙은 현수백이 박다지에게 성급히 따졌다.

그러나 박다지는 평시에 롱을 잘하던 그 배포유한 태도로 대답했다.

《바루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적들도 그렇게 생각하겠기에 여기에 진을 치는거야.》

《예? 적들도 같이 생각한다구요?》

이에 대한 박다지의 대답이 있을 사이도 없이 《왜적이 나타났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렸다.

과연 대동강건너편 동쪽아래쪽에서 뾰얀 먼지를 일으키며 수백을 헤아리는 왜적들이 몰려 오고있었다.

평양성의 장사들은 왕성탄으로 진을 옮기지 못한채 박다지가 친 진에서 적과 싸울 태세를 갖추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왜적들이 자기들의 앞을 지나 왕성탄쪽으로 오르지 않겠는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다행히도 적들은 그들의 맞은편에 이르러서는 더 올라가지 않고 기발이 나뭇기는 이쪽 진을 향하여 조총을 쏘아댔다.

이에 대응하여 의병들은 박다지의 지휘에 따라 적들을 향해

화살을 날리였다. 박다지는 화살을 좀 적게 날리면서 강을 넘기지 말고 강북편 좁에 떨어지게 하라고 하였다. 마치 적들의 사격에 겁을 먹고 기세가 죽어가는듯이 보이자는 것이였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듯 왜적들은 일제히 강물에 뛰어 들더니 악을 쓰고 헤엄쳐왔다.

왜적들의 무리가 거의다 깊은 강물에 들어섰을 때 박다지는 다시 전체 의병들에게 일제히 적들을 향해 활을 쏘게 하였다.

비발처럼 떨어지는 화살에 맞아 강북편에도 이르기 전에 저들의 군사가 모두 죽어 강물속에 가라앉자 뒤따르던 몇 안되는 적들은 도망쳤다.

드디어 전투는 의병들의 승리로 끝났다. 의병들은 승리의 함성을 높이 울리였다.

박다지가 정신없이 《만세!》를 부르는 현수백의 어깨를 치며 말하였다.

《자, 보았지? 적들은 우리가 꼭 여울목을 지키는줄로만 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야 어찌 지키지 않는 여울목을 두고 우리가 지키는 깊은 물목으로 뛰어들겠나? 하하하...》

《그러니 이번에도 왜적들이 박다지의 지혜에 걸려들었군요. 하하하...》

의병들과 장사들은 왜적들을 녹여낸 박다지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해 통쾌하게 웃었다.

지 하 명 승

송 암 동 굴

평양에서 송암동굴까지는 약 80km이다.

수수천년 깊은 땅속에 묻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있던 송암동굴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낸것은 주체91(2002)년 4월이었다.

그때로부터 송암동굴은 지하의 명승지로 국내와 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송암동굴은 지하명승으로 알려진 룡문대굴이나 백령대굴과는 달리 입구로부터 마지막까지 울리막으로 되어있으며 관광로 정 전구간이 4개의 단으로 이루어져있고 명소들의 생김새와 색깔이 매우 다양하다.

동굴의 문이라는 뜻에서 부르는 관문동입구에는 지하명승을 지킨다는 돌순인 《금강보초병》이 서있다.

이 돌순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자국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있어서인지 동굴입구쪽으로 향한 왼쪽귀가 더 크다.

관문동을 지나 폭포동에 이르면 6m높이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단심폭포가 있고 그밑에 단심못이 있다. 비단이 쏟아져 내리는듯한 돌폭포, 만선기를 날리며 돌아오는 배전우에 넘쳐나는 미역, 다시마모양의 돌고드름도 볼수 있다.

기암동에는 굳은 암석판으로 이루어진 날개돋친 독수리, 비둘기, 매, 흰물개모양의 바위, 높이가 4.2m, 질량은 1.9t이나 되는 《장검》돌고드름, 날개돋친 룡마처럼 생긴 돌순, 10단폭포와 굽이굽이 흐르는 만경천이 있다.

넓고 시원한 광장에 위치한 설경동에는 대형무리등을 방불

송암동굴은 평안남도 개천시 서남동과 안주시 송암동의 경계에 있는 자연동굴이다. 동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억년전에 형성된 고회암층이 오랜 세월 용해, 용식작용을 받아 돌꽃(석화), 돌고드름(종류석), 돌순(석순) 등이 형성되면서 천대만상의 조화를 이루어놓은것이다.

여기에는 원굴과 수십개의 가지굴이 있다.

동굴은 16개의 동으로 구획지어져있으며 매 동마다에 특색있는 명소들이 있다.

글 본사기자 러 해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주충성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금강보초병》



《게사니》



《돼지심장》



《안번느라리버섯》



《두더지부부》



《비둘기바위》



《옥토키 삼형제》

룡궁못에서의 배놀이

케 하는 돌고드름인 《금강무리등》과 아름다운 돌서리꽃으로 단장된 《부부거부기》, 복숭아꽃, 살구꽃 등 지상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화원》이 펼쳐져 있다.

수많은 못별들을 편상시키는 돌순, 돌고드름과 별무리속에 《북두칠성》이 반짝이는 운하동, 천연수림을 방불케 하는 수림동, 온갖 만물이 다 형성되었다는 보물동, 느라리버섯, 파뿌리와 같은 각이한 모양의 돌순과 돌꽃들이 많은 백화동도 있다.

그뿐이 아니다.

갓가지 꽃들과 단풍으로 신비경을 이룬 《꽃기둥》, 《꽃바구니》 돌순이 있는 궁전동과 방금 캐낸 듯한 약초모양의 희귀

한 돌고드름, 돌꽃들이 많은 소생동, 뜨거운 용암을 뿜어올리는 화산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화산동, 동물세계를 방불케 하는 꽃동산동도 있다.

장수동에 있는 여러개의 돌기둥으로 된 《돌풍금》을 두드리면 각이한 음향이 울려나온다.

전설속의 《룡궁》을 보는 것만 같다는 희한한 룡궁동, 잘여문 여러 종류의 《난알》들과 《감자》들이 가득찬 풍년동, 마치 선녀, 선남이 훨훨 나는 듯한 선녀동 등의 명소들도 있다.

가는 곳마다 명소이고 보는 것마다 황홀경인 송암동굴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누구에게나 밝은 웃음과 약동하는 젊음을 안겨주고 있다.



돌련못



은하못의 칠색송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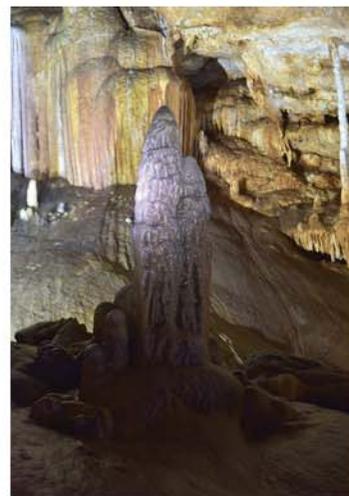
《장수기동과 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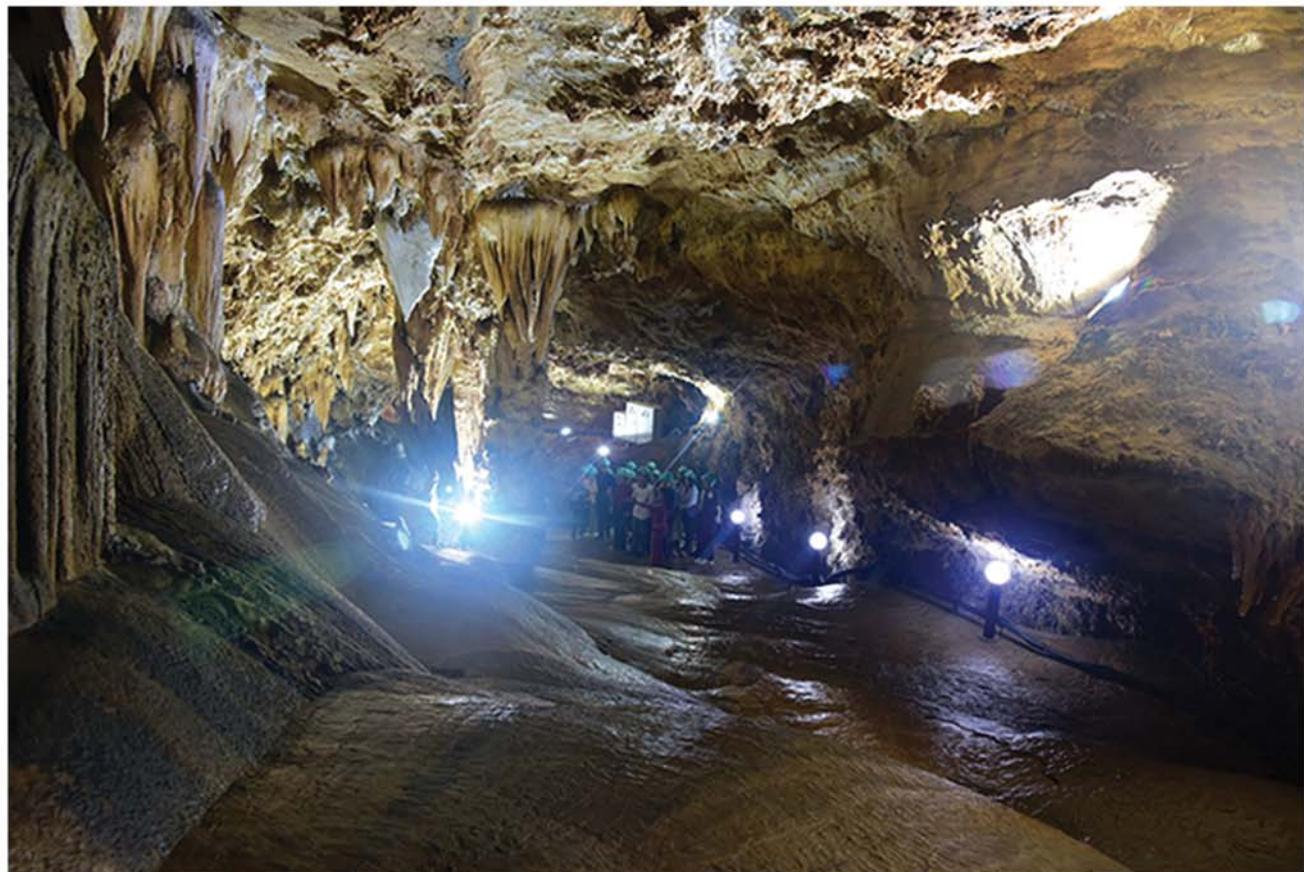
여러가지 모양의 돌꽃들



《왕분어》



《부부석순》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